

SIGNS #3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되다

■ 본문

왕상 18:41-46

■ 시작 찬송가

36, 86, 287장
(통 36, 86, 205장)

■ 헌금 찬송가

263, 361, 546장
(통 197, 480, 399장)

▶ 작다

1. 일반적 고찰

1) 불의를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된다.

(창 30:15)

2)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 크게 역사하신다.

(사 60:22, 미 5:2)

3)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마 5:19)

4)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사람은 할 수 없다.

(눅 12:25-26)

5)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마 11:11)

6)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

(마 25:21, 23)

7)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께 한 것이다.

(마 25:34-36, 40)

8) 작은 지체인 혀를 제어해야 한다.

(약 3:2-5)

지난 두 주간 징조를 아는 지혜에 대한 말씀과, 아무 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작은 소망의 징조를 발견하는 영적인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왕상 18:41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 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왕상 18장 ‘갈멜산 대결’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시던 바알의 제사장 450명,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과의 대결

1.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갈멜산 대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왔던 이스라엘의 가뭄을 멈추게 하시고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엘리야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갈멜산 대결’이 끝난 후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 후에도, 놀라운 기적 후에도, 때로는 어려움 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왕상 18:1 많은 날이 지나고 제삼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0%나 2%나 그것이 그것입니다. 아예 안 되는 것이나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것이나 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0.1%도 가능성입니다. 손 만한 작은 구름도 큰 비가 되는 기적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무 것도 안 보일 때에도, 사람의 손 만한 것이 보일 때에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큰 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 21: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2.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인리히의 법칙’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

우리가 하는 작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것들이 재난의 징조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의 징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불평이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기도가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람의 손 만한 작은 구름이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마 21: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3. 기도 전부터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큰 빗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아합에게 가서 먹고 마시라 했습니다. 지금 가뭄이 3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구름도 뜨지 않았는데 무슨 빗소리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기도 전부터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언제부터 믿어야 하느냐? 기도 전부터 믿어야 합니다.

왕상 18:41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4. 작은 구름을 보고도 큰 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사환이 여섯 번 가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일곱 번째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때 엘리야는 얼마나 믿음으로 설레발을 치는지 모릅니다. 지금 엘리야는 작은 구름 하나 뒀는데 아합한테 비에 막히니까 빨리 마차타고 내려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작은 구름을 보고도 큰 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큰 구름이 덮고 있어도 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 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왕상 18:44 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출 19장 ‘시내산 십계명’ 출애굽 3개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셔서 40일 주야를 함께 하시고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내려가게 하심. 모세는 금송아지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율법판을 절망 가운데 깨트림.

5. 믿음은 ‘무엇이 큰가?’의 싸움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만큼 구름의 크기도 커집니다. 시내산 이야기를 보면 ‘뽕뽕한 구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출 19:9a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뽕뽕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출 19:16a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뽕뽕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출 24:15-16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옛날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백성들이 처음에는 구름이 뽕뽕한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었지만 모세의 내려움이 더더지니까 두려움이 사로잡아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출 32:1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움이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 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산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믿음은 ‘무엇이 큰가?’의 싸움입니다. 두려움이 큰가? 믿음이 큰가? 세상이 큰가? 하나님이 큰가? 세상보다 하나님께서 크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상을 만들 어내지 않고,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요일 5: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6. 작은 구름이 온 땅을 복되게 합니다.

저 멀리 작은 구름이 떠서 가뭄으로 메말라 있던 이스라엘 온 땅에 비를 내려주고 살아나게 했습니다. 작은 구름이 온 땅을 복되게 합니다. 우리는 큰 것을 받아서 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일도 작은 구름에서 시작합니다.

왕상 18:45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7. 우리는 작은 구름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인공강우처럼 인공으로 비를 내리지 못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구름을 띄우는 일입니다. 불평이 가득한 이 시대에 감사의 작은 구름을 띄우는 사람,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작은 구름을 띄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비가 풍성히 내려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마 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크랙 그로셀 목사님 책에서 베이브 루스의 7번째 사인 배트가 사라졌다가 수십 년 만에 나타나 경매로 130만 불에 팔리게 됨. 식당 기금 외 나머지 전부를 어린 이재단에게 기부. “이 배트는 아무 것도 아닌 배트인데 베이브 루스가 사인했기 때문에 큰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루스 때문에 가치가 있으니깐 루스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작은 구름이지만 이 땅에 큰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작은 구름 되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비를 뿌립시다!**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입대자,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탈북민, 이주노동자, 미혼모, 소년소녀가장 등)

▶ 기도

1. 기도의 능력

- 1)하나님의 진노를 막음 (민 11:2)
- 2)생명을 연장시킴 (왕하 20:5-6)
- 3)승리케함 (출 17:11)
- 4)생사를 결정함 (창 20:7)
- 5)병을 고침 (약 5:16)
- 6)눈을 열거나 어둡게 함 (왕하 6:17-18)
- 7)비를 오게하고 오지 아니하게도 함 (약 5:17-18)
- 8)귀신을 내어 쫓음 (막 9:28-29)
- 9)교회를 부흥케 함 (행 2:42,47)

2. 기도해야 할 경우

- 1)마음이 괴로울 때 (삼상 1:10)
- 2)환난날에 (시 50:15, 약 5:13)
- 3)사명을 앞두고 (마 26:36-39)
- 4)감사할 때 (느 11:17)
- 5)성전을 짓고 나서 (왕상 8:28-30)
- 6)전도자 파송할 때 (행 13:3)
- 7)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민 11:2)
- 8)병든 자가 있을 때 (약 5:14)